아트 스페이스 풀
공공적 소란: 1998–2012 –
17개의 사회적 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中
서행, 질주, 무단침입의 여럿 제안
(게스트 큐레이터: 이솔)

2013. 9. 12 – 10. 27

소리와 목소리 사이를 서행하다

김지연, 사운드아트

1. 아카이브를 펼치기

1)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소리환경을 살피는 일의 의미와 몇가지 방법들

나는 소리생태와 음향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여 환경의 소리를 녹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음악작업과 더불어 그 맥락을 사회문화적으로 넓힐 수있는 워크숍을 병행해오고 있다. 내게 관심있는 환경은 굳이 분류하자면 도시생태계보다는 자연생태계쪽에 가깝지만, 그 구분에 매끈하게 들어가지 않는 주변부의 애매한 공간들에도 종종 매료되곤 한다.

한 지역의 소리환경을 살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읽어내는 일이다.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의 미시세계를 들여다 보고, 그 속에서 생태계의 거시적 흐름을 이해하는 생태학자의 태도와도 비교될 수 있다. 자연지리, 지역주민의 삶, 기반산업, 사회정치적 현실이 모두 한 지역의 소리환경을 구성해간다. 여기서 소리는 일종의 리서치 툴로 작동하는데,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환경의 여러 소리를 녹음한다. 그 소리를 자세히 들으며 최대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상황과 정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만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고안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들인다. 여기서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매체적 관심은 결국 소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즉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들릴뿐 아니라, 표면의 진동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전달하며, 따라서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쩌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에서 소리매체의 사용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듣기에 대한 사유와 듣는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작가들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미술이 시각예술로 한정된다면 이러한 나의 생각은 무용한 코멘트에 머물수도 있겠다.

2) 사회적미술 작업들에서 소리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의 특징과 한계
– 구체적 공간에서 상징화되는 소리

'듣는다' 라는 행위는 원초적인 동시에 굉장히 문화적인 행동이라는 말이 있다. 원초적이라 함은, 소리가 일종의 알림과 신호로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것, 벌어질 일에 대해 빠르게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듣는 것이 문화적인 행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를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 해석의 과정이 결국 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체계 아래서 형성되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을 듣는가(혹은 듣도록 교육받는가)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다.

나는 종종 사회적 미술 작업들이 소리를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차용하는 경우를 본다. '목소리', '대화', '맥박', '외침', '침묵', '공명', '울음' 등 미술 프로젝트들의 제목으로 차용되는 소리와 관련한 단어들을 살펴볼때 소리는 일종의 징후로 다뤄지고,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을 획득한다. 나는 상징으로서의 소리보다는 구체적인 소리, 실재의 소리에 관심이 있다. 공공미술이 실제공간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와 매체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소리에 있어서만은 그것을 일종의 상징으로 다루고 더 이상의 접근이 진행되지 않는 지점이 아쉽다.

– 목소리와 목소리가 아닌 것

아카이브 자료들을 열람하며 많은 작가들이 현장리서치방법으로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들은 주민들에게서 목소리를 얻어내고, 말하게 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편집함으로써 그 목소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증거하게 한다. 이렇게 목소리는 종종 어떤 구체적 서사를 형성해가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아직은) 유일한 방법으로 작가들에게 사용되는 듯 하다. 르포르타쥬 포맷을 차용한다고 하지만, 내래이션 영화같은 느낌이 들때도 자주 있다. 나는 종종 작가들이 목소리가 없는 대상들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더 흥미로워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은 목소리를 다루더라도 의미를 지운 소리–음색, 말투, 뉘앙스, 발화의 방식 등– 에 관심을 갖어보는건 어떨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증거하지 않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 조금 다른 그릴 수있지 않을까. 가장 아쉬울때는 목소리들에 의해 배경의 소리가 가려지는 때이다. 작업의 초점이 배경보다는 증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때, 내가 마주하는것이 그 지역이 아니라 작가가 주도하는 서사일때, 나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을 느낀다. 공간의 소리가 의도된 목소리로 마스킹되는 순간이다.

4) 내가 지지하는 작업들:
플라잉시티의 <파괴의 땅에서 할만한 일>(2002)과
김상돈의 <4분간 숨을 참아라> (2007)

플라잉시티의 <파괴의 땅에서 할만한 일>과 김상돈의 <4분간 숨을 참아라>는 이러한 사회적 미술 프로젝트들에서 발견되는 소리

매체 사용의 한계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뿐하게 넘어서고 있다. 플라잉시티의 <파괴의 땅에서 할만한 일>은 재계발 아파트의 빈 집에 들어가 버려진 물건들을 온갖 방법으로 부시고, 찢고, 깨고, 뜯어놓음으로써 모든것을 재료로 돌려버리는 퍼포먼스이다. 이들은 비디오 촬영 내내 어떻게 하면 각기 다른 물건들을 다르게 파괴할지에 대해 공공연히 아이디어를 내놓기까지 한다.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서 추상화된 소리를 발생해내며, 놀랍게도 그 소리는 재계발 지역민의 어떤 증언이나 목소리보다도 더 큰 임팩트로 그들의 행위를 증폭한다.

김상돈 작가의 <4분간 숨을 참아라>는 동두천에 이름없이 묻힌 무연고자들의 공동묘지 주변의 자연물들과 무덤의 장소를 훑는 카메라의 시선에 그 장소에서 들리는 주변소리들을 매치한 영상 작업이다. 나는 김상돈작가가 이 작업에서 오히려 말을 참음으로써 훨씬 더 깊은 곳에 닿았다고 생각한다. 무연고자들의 공동묘지를 그때도 지금도 담담하게 흐르고 있는 물과 바람, 석양의 노을빛과 새에 목소리를 내어줌으로써 담백한 화법을 형성하고 있다.

2. 아카이브 작업들과 평행하게 달리기

아래는 내가 유사한 성격의 지역을 다르게 접근하였거나, 다른 지역을 유사하게 접근한 사례, 해당 작품들에서 엿본 소리환경과 다뤄지지 않은 소리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코멘트들이다.

성남프로젝트
«성남모더니즘» 1998. 10. 16-11. 4, 서울시립미술관
«성남과 환경미술» 1998. 10. 19-10. 25, 성남시청 로비
«모란장 그 공간의 의미» 1999. 10. 13-10. 17, 성남시청 로비

성남프로젝트 아카이브에서 보았던 난개발의 집들과 주민들이 고안한 독특한 생활오브제들 사진들은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광명을 떠올리게한다. 작년부터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소개로 광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을 만나 소리환경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전까지 내게 광명은 그저 신혼부부와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 인접한 비교적 물가가 싼 도시라는 점이었다. 광명을 드나들며 알게된 것 중의 하나는 유독 광명에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밤에 집에 가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아이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아동이나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 아동 등이 많다. 그 아이들과 나는 소리에 대한 이런저런 워크숍을 해왔는데, 특히 우리가 주로 수업을 하던 광명4동, 5동, 철산동을 '환경의 소리' 라는 프레임을 통해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은 진행해왔다. 광명재래시장과 옆에 나란히 생긴 이마트에서 관찰할 수있는 소리목록을 비교하거나, 빛을 소리로 바꾸는 픽업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빛을 찾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인 소리든, 추상적인 소리든, 소리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동네를 조금 다르게 살피게 만들고 싶었다. 참여아이들의 연령과 나의 성격상 성남프로젝트와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비판적인 프로젝트를 상정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둘러 본 광명의 가장 기이한 공간은 가학광산동굴이었다. 광명시에서 이 동굴에 이런저런 난개발을 해대는 모습은 성남의 그것과 겨뤄볼만 하다.

플라잉시티
«표류에의 초대» 2003. 2. 28 - 3. 17, 마로니에미술관.
기획/참여: 플라잉시티

한때 나는 한강의 다리를 하나씩 찾아가 다리 녹음을 하곤했다. 대체로 일요일 밤, 모두가 안전한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간 나는 장비들을 챙겨 어둑해질 때즈음 집을 나섰다. 당시 특정한 주제라던가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그 육중한 도심의 다리에 올라가,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이 다리를 흔들어 만들어내는 진동의 묘한 불협화음을 듣는 것이 좋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물을 막막한 마음으로 내려다 보는 것도 어쩐지 좋았다. 플라잉시티의 «표류에의 초대»에 전시되었던 세편의 영상작업 <망원동 임시조각>, <파괴의 땅에서 할만한 일>, <북안산에서 외치다>를 보았을때, 비로소 당시의 나는 내안의 심리지리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플라잉시티는 '도시를 무목적적으로 산보하면서 특정한 장소가 주는 감각적 사실을 기록하려는 표류' 라는 표현을 쓴바 있다. 이런저런 다리 소리를 컨택트 마이크로 기록하다 어느 시점에가서는 그 장소에 소리를 가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잠실대교 근처 빗물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이런저런 장비들을 장착하고 피드백과 오실레이터를 이용해 내가 녹음하려는 장소에 반대로 소리를 가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다. 도시의 무심한 시설물들을 임시로 점유하고 소리의 재료를 찾아 헤매던 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작업들이다.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2007. 12. 1 - 2008. 2. 24, 뉴뮤지엄, 인사미술공간.
기획: 김희진. 참여작가: 고승욱, 김상돈, 노재운, 정은영

이탈리아 북부지방 슬로베이니아와의 국경지대에 토폴로라는 작은 산간 마을이 있다. 주민이라고 해봤자 백명이 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이곳은 한때 슬로베이니아에 속했던 영토이기도 해서, 영토권을 두고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과 그로인한 주민들사이의 불화와 반목이 곳곳에 스며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열리는 Stazione de Topolo라는 현대음악제는 단순히 음악제라기 보다는 이러한 커뮤니티의 보이지 않는 오랜 앙금을 씻고자 시작되었다. 나는 작년에 이곳에 일주일간 머물며 짧은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다. 마을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입구에는 족히 수십미터가 넘는 긴 쇠줄이 있다.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장작패들을 실어 마을로 나르던 일종의 레일과 같은 줄이었으나, 이제는 그 쓸모가 없어진 버려진 줄이었다. 쇠줄이 유난히 두껍고 센 장력을 갖고 있어서 손으로 줄을 튕기기만해도 SF영화에서 나올법한 독특한 공명소리가 났다.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그러한 신비한 소리를 내는 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녹음을 하던 날 밤, 천둥을 동반한 엄청난 비바람의 폭우가 쏟아졌다. 바람과 비, 벼락이 그 쇠줄에 가해져서 줄의 공명소리는 정말 장관이었다. 나는 그 폭우 속에서 녹음을 했고, 음악제에서 그것으로 작은 공연을 하였다.

김상돈의 <4분간 숨을 참아라>는 동두천에 이름없이 묻힌 무연고자들의 공동묘지 주변의 자연물들과 무덤의 장소를 훑는 카메라의 시선에 그 장소에서 들리는 주변소리들을 함께 들려주는 영상 작업이다.

«군산 리포트: 생존과 환타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2012. 3. 13 - 4. 29, 아트 스페이스 풀. 기획: 김희진
참여작가: 개복인, 경호회, 권용주, 김진기, 김청진, 김혜원,
믹스라이스, 백현주, 유턴, 조은지, ps

나는 아직 군산을 가본적이 없으나 군산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한가지 있다. 그것은 군산의 어청도 등대이다. 등대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보내어 선박으로 하여금 방향을 알려주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사이렌이나 혼, 종 등으로 소리신호를 보내거나 전파발신의 방법으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항구의 소리풍경을 그리는 작업으로 등대의 빛을 소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등대의 구조나 그곳에서 있음직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있다. 그래서 내게 군산은 가보고 싶은 등대인 '어청도 등대'가 있는 곳이다. (어청도 등대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해 만든 근대시설물중의 하나이며, 군산 곳곳에 산재한 근대시설물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군산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경호회의 <창문과 꿈 - 진봉석의 개인전 프로젝트>는 군산의 화가인 진봉석화백의 개인전을 기획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김경호의 <진봉석의 낡은 의자>, 김상돈의 <창문과 꿈>, 남상수의 <적응의 시간> 세 작업이 기묘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3. 아카이브를 접기

아카이브 자료들을 살펴보며 때로는 작가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멀리떨어져 관망하기도 하고, 몇몇 작가들의 팬이 되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기기도 하였다. 어떤 지역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그곳을 맵핑하고, 이해하고, 흥미로운 것을 캐내고, 연결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느꼈을 피로감과 고충이 전해져오는 듯 하다.

나와 미술가들의 접근 방식이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소리환경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런저런 제안을 한다고 하였지만, 더욱 솔직하게는 그들의 작업이 많이 부럽다. 나의 소리는 늘 미끄러지고, 내 귀가 건져올린 소리들은 내 생각을 담아내지 않고 자꾸만 구멍을 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구멍의 틈새에 귀기울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말이다.